

宋代 靜志寺塔 地宮의 佛舍利 再埋納과 莊嚴方式 研究

The Re-enshrinement Process of the Buddhist Reliquaries of Jingzhisi Pagoda in Northern Song Dynasty

저자 (Authors)	周旻美 Joo Kyeongmi
출처 (Source)	미술사학 , (23), 2009.8, 73-109 (37 pages) Art History , (23), 2009.8, 73-109 (37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미술사교육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rt History Educ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245002
APA Style	周旻美 (2009). 宋代 靜志寺塔 地宮의 佛舍利 再埋納과 莊嚴方式 研究. 미술사학, (23), 73-10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30 15:4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宋代 靜志寺塔 地宮의 佛舍利 再埋納과 莊嚴方式 研究*

周 旻 美**

- I. 머리말
- II. 정지사탑 지궁 출토유물의 연구 현황
- III. 정지사탑 지궁의 불사리 재매납 관련유물
- IV. 정지사탑 지궁의 사리장엄방식의 변천 과정
- V. 맺음말

I. 머리말

어느 불교 문화권에서나 석가모니 부처가 입멸한 후 세상에 나타난 佛舍利는 존숭의 대상으로서 중요시되어 왔으나, 사리 그 자체가 신도들에게 드러내어 보여지는 경우는 드물다.¹ 일반적으로 불사리는 여러 가지 장엄구에 봉안된 상태로 그 존재성을 인정받아왔는데, 이러한 장엄구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바로 탑이다. 사리와 탑은 서로의 존재를 상호상징하며 일체화된 신앙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이 세운 탑은 시대가 지나면 그 흔적이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의 육신을 火葬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인문사회분야: KRF-2007-358-G00005).

** 부경대.

¹ 舍利란 산스크리트어 “sarīra”의 音譯語로서, 원래의 뜻은 ‘몸이나 뼈, 屍身, 身骨, 遺身’ 등을 뜻한다. 사리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는 주경미,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일지사, 2003), pp. 14-21 참조. 여래의 遺化인 佛舍利는 언제나 존재하며 뜻이 있는 곳에 항상 나타난다는 개념은 중국 南北朝時代의 舍利神異 故事에서 대부분 보인다. 같은 책, pp. 60-68 참조.

하여 얻어졌다고 믿어진 眞身舍利는 부처와 동일시되는 존재로서², 동아시아 불교계에서는 일찍부터 특별히 귀하게 여겨졌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장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에서는 당나라 말기 廢佛 시기와 五代十國의 혼란기에 많은 탑들이 파손되어 그 흔적이 사라졌지만, 960년 北宋의 건립과 함께 사회가 안정되면서, 각지에서는 무너졌던 불교 사찰과 탑이 재건되기 시작했다. 탑의 재건은 보통 진신사리가 매납되어 있었다고 여겨진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廢塔 아래에 묻혀 있던 진신사리의 발굴과 재매납은 이러한 재건과정에서 필수적이었다.³

본고에서는 북송 초기의 대표적인 진신사리 봉안처였던 하북성 定州 靜志寺塔 地宮 출토품을 중심으로, 중국 중세 불교계에서 이루어졌던 불사리의 재매납과 장엄방식의 구체적인 실례를 살펴보겠다.⁴ 정지사탑의 지궁에서는 북위시대부터 송대까지 5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불사리의 재매납 과정과 관련된 유물과 기록이 출토되었는데, 이들은 중세 당시 불사리의 재매납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제까지의 불사리장엄 연구는 사리장엄구의 구성과 각 장엄구들의 양식적 편년 등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중세의 불사리장엄구는 여러 차례에

² 인도 초기 불교에서舍利는 가장 성스러운 유물로서 숭배되었으며, 불상이 제작된 이후에도 사리는 중요한 숭배의 대상으로서 불상 안에 봉안되기도 하였다. 舍利的 神聖性 및 불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Gregory Schopen, *Bones, Stones, and Buddhist Monks: Collected Papers on the Archaeology, Epigraphy, and Text of Monastic Buddhism in Indi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7); 이주형, 「인도 초기불교미술의 佛像觀」, 『美術史學』 15(2001.8), pp. 85-126; 上同, 「간다라 佛像과 舍利 奉安」, 『중앙아시아 연구』 9(2004.12), pp. 129-159; 주경미, 「불교미술과 물질문화: 물질성, 신성성, 의례」, 『미술사와 시각문화』 7(2008. 10), pp. 38-63.

³ 폐탑의 재건은 『無垢淨光大陀羅尼經』(T1024, 19:717c-721b)을 비롯한 여러 경전에서 권하는 功德 중의 하나로서, 북송대 뿐만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T…이 하는 『大正新修大藏經』의 수록번호와 권:쪽 표시임). 현존하는 송대 사리장엄구 중에는 그 이전시대인 남북조시대부터 당대까지의 사리장엄구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그 이후인 원대나 명청대 봉안품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⁴ 중국사의 중세는 일본 京都派의 견해를 따라 남북조시대부터 당대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대 구분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関斗基 編, 『中國史 時代區分論』(創作과 批評, 1984) 및 임지현·이성시 편,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휴머니스트, 2004) 참조. 불교문화의 경우에는 후한말에 전래되어 본격적인 불교문화 관련 유물은 위진남북조시대부터 나타나므로, 이때부터 唐代까지를 고대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속성 상에서 송대 및 요금원대까지를 중세로 설정하였으며, 이 연구는 학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3년간 진행되는 필자의 「중국 중세(10-13세기) 불사리장엄 연구」의 일부이다.

걸쳐 장엄구의 보수 및 추가 매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장엄구의 양식만으로는 편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 곳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 중에도 여러 시대의 유물이 복합된 경우가 많고, 앞 시대에 매납되었던 장엄구의 양식을 모방, 혹은 변형하여 새로 만들거나 보수해서 다시 봉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의 중세 불사리장엄의 연구에서는 각종 유물 및 명문자료를 통해서 불사리의 재매납 과정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장엄방식의 성격 변화를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지사탑 지궁 출토품은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II. 정지사탑 지궁 출토유물의 연구 현황

1. 정지사탑 지궁의 발굴

1969년 5월 중국 하북성 定州市에서 발굴된 정지사탑 지궁에서는 각종 사리장엄구 및 공양구 700여 건과 동전 27000매가 발견되었다.⁵ 정지사탑 지궁이 발견되던 1969년은 문화혁명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들 출토 유물들은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구체적인 보고서도 발간되지 못했다.

정지사탑 지궁 출토 유물에 대해서는 발굴 후 3년이 지나 발표된 간략한 보고문을 통해서 알려졌다⁶, 출토 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1990년대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공개된 것은 1997년 10월 일본 동경에서 열린 특별전을 통해서였다.⁷ 이 특별전에서는 정지사탑 지궁 출토품 중 88점의 유물이 처음으로 해외에 공개되어 연구의 단초를 마련했으며, 기년명 定窯 백자나 유리기 등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궁의 본래 매납 목적인 불사리장엄 방식에 대한 연구는 심도 깊

5 定縣博物館, 「河北定縣發現兩座宋代塔基」, 『文物』 195(1972. 8), pp. 39-51; 金沢陽, 「定州の佛塔と塔基地宮發掘の成果」, 『地下宮殿の遺宝』(東京: 出光美術館, 1997), p. 25.

6 당시 출토 유물 목록은 定縣博物館, 위의 글, pp. 46-47의 표 참조. 이 보고서의 목록이 현재까지 알려진 정지사탑 지궁 출토 유물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자료이지만, 그 후 출간된 자료들에 의하면 원 보고서에 기술된 유물의 크기나 무게가 종종 잘못 기록된 예들이 있다.

7 특별전 도록은 『地下宮殿の遺宝』(東京: 出光美術館, 1997) 참조. 이 도록에는 컬러 도판과 함께, 宿百, 金沢陽, 山崎淑子が 쓴 세 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재 정지사탑 지궁 출토품은 定州市博物館에 대부분 소장되어 있으며, 최근 발간된 박물관 도록에서 새로운 유물 18점이 추가로 소개되었다.⁸

그러나 지금까지의 공개 유물과 연구는 공양구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지사탑 지궁의 사리장엄 방식의 변천과정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현재 정주시박물관 내부에는 정지사탑 지궁 출토품 중 주요 유물을 특별 전시실에 전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리장엄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석함과 石棺, 誌石은 전시되지 않기 때문에,⁹ 이들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실린 작은 탁본 사진으로만 연구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북송대 초기의 불사리장엄 방식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지사탑 지궁의 불사리 재매납 과정과 사리장엄 방식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지사탑 지궁의 유물 배치

정지사탑의 지궁은 평면이 정방형에 가까운 방형으로 전돌을 쌓아서 만들었으며, 천정은 伏斗形이다.¹⁰ 천정 꼭대기는 구멍이 나 있으며, 그 위에는 돌로 만든 지붕 모양의 뚜껑이 덮여 있었다.¹¹ 지궁의 사방 벽에는 모두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지궁의 문은 전돌을 아치형으로 쌓아서 만들었으며 지궁의 남쪽면에 위치해 있었다. 문 좌우의 남쪽벽에는 각각 갑옷을 입은 천왕상이 1구씩 배치되어 있었다.¹²

지궁의 벽화는 南壁의 天王像圖, 北壁의 舍利禮敬圖, 東壁의 梵天圖, 西壁의 帝釋天圖 등이며,¹³ 공양자들의 이름과 북송 太平興國 2년(977) 5월이라

⁸ 河北省文物局 編, 『定州文物藏珍 - 河北文物精華之三』(廣州: 嶺南美術出版社, 200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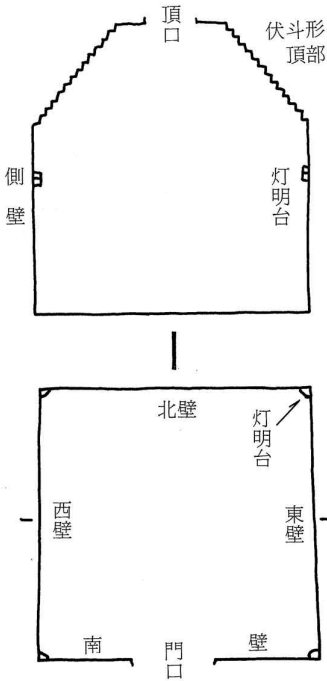
⁹ 필자가 2009년 3월 定州市博物館을 방문했을 때, 공개되어 있는 석함은 隋代 명문이 새겨진 大石函 1점뿐이었으며 다른 석함이나 석함뚜껑, 石棺은 비공개품이라 조사하지 못했다. 조사에 도움을 주신 定州市博物館의 郝進庄 관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¹⁰ 현재 정지사탑 지궁은 정주시내 貢院 옆의 주택가 내에 있지만, 내부는 개방되지 않는다. 이하 지궁의 구조에 대한 내용은 金沢陽, 앞의 글, pp. 29-31 및 定縣博物館, 앞의 글, pp. 39-4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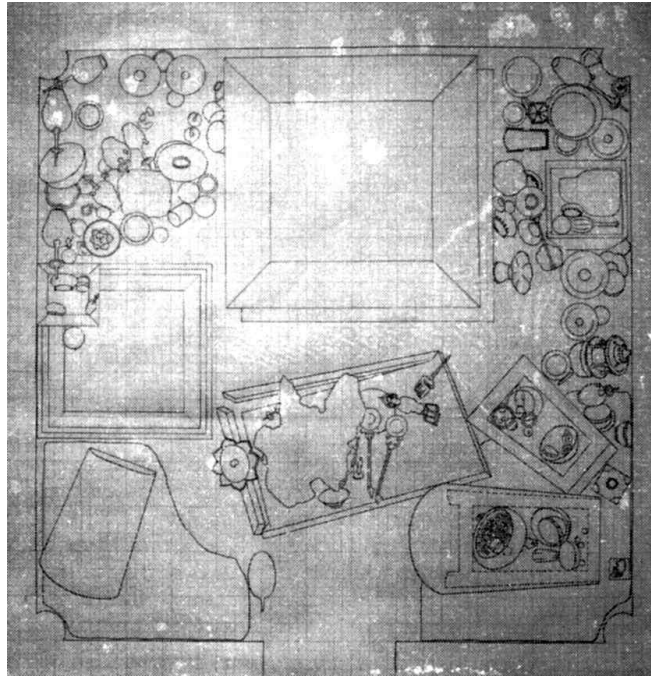
¹¹ 定縣博物館, 앞의 글, p. 39, 圖一.

¹² 金沢陽, 앞의 글, p. 29, 挿圖 7-10 참조.

¹³ 지궁 벽화의 양식과 명문에 대해서는 山崎淑子, 「定州靜志寺・淨衆院舍利塔塔基地宮の壁畫」, 『地下宮殿の遺寶』(東京: 出光美術館, 1997), pp. 38-39.



1 정지사탑 지궁의 구조. 높이 2.34m. 『地下宮殿の遺寶』, p. 29, 挿圖 6.



2 정지사탑 지궁내 유물 배치도 『地下宮殿の遺寶』, p. 30, 挿圖 13.

는 제작연대가 묵서로 쓰여 있다.¹⁴ 전체적으로는 북벽 중앙에 그려진 “釋迦牟尼佛 眞身舍利”라는 명문이 쓰인 위패를 10대제자와 범천, 제석천이 공양하는 석가열반경 변상도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정지사탑 지궁에는 발굴 당시 여러 가지 유물들이 꽉 차 있었으며 도2, 개원통보와 주원통보를 비롯한 각종 동전들이 바닥에 가득 깔려 있었다. 북벽 중앙에 놓인 방형의 대리석제 大石函이 탑의 중심이 되는 진신사리를 봉안한 사리장엄구였으며 도3, 그 앞에는 나무로 만든 탁자가 놓여 있었다. 탁자 위에는 향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공양구들이 놓여 있었다. 석함과 탁자 주위에는 小石函과 그 뚜껑, 그리고 唐代重葬記가 쓰여 있는 석함뚜껑, 당대 石棺 2개 및 그 뚜껑들이 놓여 있었으며, 석함과 석관 사이의 공간에서는 무수히 많은 도자기들이 출토되었다.¹⁵

¹⁴ 지궁 北壁 서쪽 윗부분에 “太平興國二年五月”이라는 명문이 있으며, 西壁 남쪽에는 “太平國二年丁丑歲五月廿二日壬午”, 東壁 남측 윗부분에는 “太平興國□年五月二十二” 등의 명문이 묵서로 쓰여 있다. 구체적인 명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山崎淑子, 위의 글, p. 39 참조.

뚜껑에 隋代 606년의 명문이 새겨진 중앙의 대석함도³ 위에는 사리의 重葬에 관한 송대의 誌石이 놓여 있었고, 맨 위에는 石造像 3점과 木造像 2점, 나무로 만든 연꽃가지 등이 놓여 있었다.¹⁶ 석함 내부에서는 金棺 3점, 금동제 천왕상 1점, 금동제 역사상 1점,¹⁷ 은탑 4개, 은향로 및 각종 공양구 등이 발견되었다.

석함 내부와 지궁 내에서 출토된 수많은 유물들의 구체적인 출토 상황과 수량은 자세하지 않지만, 출토 유물의 대부분은 銅製彫像 20여 점, 木製彫像 4점을 비롯한 불교조각과 금은기 60여 점, 銅鏡 10여 점, 유리기 20여 점, 도자기 120여 점 등의 공예품이다. 이 중에서 기년명이 있는 북송 초기의 定窯 자기가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으나,¹⁸ 기타 유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구가 미진하다.

다음으로는 정지사탑 지궁의 불사리 재매납과 장엄방식의 변천과정에 대해서 주요 유물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Ⅲ. 정지사탑 지궁의 불사리 재매납 관련유물

정지사탑 지궁에서 불사리장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물은 金棺 3점, 銀槨 3점, 은탑 4점, 금동함, 대석함, 소석함, 석함뚜껑, 誌石, 石棺 2점 등 상당히 많다. 그러나 그 중에서 불사리 재매납 과정을 알려 주는 명문이 나타난 유물은 현재 9점이 알려져 있다. 이들 9점의 유물은 다음의 표1로 정리해놓았다. 이 유물들은 모두 사리장엄구로 사용된 것으로, 그 중 5점은 석조품이며, 4점은 금속공예품이다.

15 金沢陽, 앞의 글, pp. 30-31 및 挿圖 13-25 참조.

16 定縣博物館, 앞의 글, p. 40 및 金沢陽, 위의 글, p. 30, 挿圖 18 참조. 定縣博物館의 보고서에서는 송대 지식의 탁본을 圖 14, 15라고 했으나, 이것은 보고서상의 誤記로 생각된다. 발굴당시의 사진에서도 석조상이 놓인 석조물은 녹색형이 아닌 방형으로 되어 있으며, 송대 誌石은 명문의 내용으로 볼 때, 보고서의 圖 6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圖 14와 15는 隋代 및 唐代重葬記가 적힌 석함뚜껑(본고 도 5 참조)의 명문이다.

17 河北省文物局 編, 앞의 책, 圖 8 참조. 발굴보고서에서는 2점을 모두 천왕으로 표기했으나, 실제로는 천왕 1점과 역사상 1점이다. 두 상의 제작연대는 宋代說과 晚唐代說 등 두 가지가 있다.

18 定窯磁器에 대해서는 李輝柄, 「關於“官”, “新官”款白瓷產地問題的探討」, 『文物』 343(1984.12), pp. 158-163; 李輝柄·畢南海, 「論定窯燒瓷工藝的發展與歷史分期」, 『考古』 243(1987.12), pp. 1119-1128; 陳文增, 『定窯研究』(北京: 華文出版社, 2003)참조.

표 1 정지사탑 지궁 출토 사리장엄 관련 명문자료

	이름		시 대	명문위치
1	소석함	453	北魏 興安 2년 11월	측면
2	대석함	606	隋 大業 2년 10월 8일	윗면
3	금동함	606	隋 大業 2년 10월 8일	사방 측면
4	석함뚜껑	606 858	隋 大業 2년 10월 8일 唐 大中 12년 4월 8일	윗면 및 모죽임부
5	은탑 ①	848	唐 大中 2년 4월 8일	탑신 각 모서리
6	석관	889	唐 龍紀 元年 4월	몸체 측면
7	지석	977	宋 太平興國 2년 5월 22일	윗면
8	은탑 ②		宋	탑 기반부 및 지붕
9	은탑 ③		宋	탑신 정면

1. 소석함

북위시대의 명문이 있는 소석함은 녹색형 방형함 형식으로, 뚜껑과 석함 몸체는 각각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다. 명문은 불상과 함께 석함의 측면에 새겨져 있었다고 하지만, 석함의 탁본이 공개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석함의 크기는 높이 31.5cm이며, 사방 길이는 30.5cm라고 한다.

명문은 “大代興安二年歲次癸巳十一月…” 등이라고 하는데,¹⁹ 이를 통해서 이 소석함이 북위 興安 2년(453) 11월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2. 대석함 도3

지궁 북벽 중앙에 놓여 있던 대석함은 녹색형 방형함으로, 명문은 뚜껑 윗면 중앙에 새겨져 있다. 석함의 외측면에는 아무런 문양이 없다. 명문은 전체 5행 5자씩으로, 모두 25자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²⁰ 명문에 의하면 이 석함은 수나라 大業 2년, 즉 606년 10월 8일에 만든 사리보함이다.

¹⁹ 定縣博物館, 앞의 글, p. 40.

²⁰ 석함 명문 全文: “大隋大業二 / 年歲次丙寅 / 十月壬午朔 / 八日己丑舍 / 利寶函之銘”



3 대석함. 隋 606년. 정지사탑 지궁 출토.
높이 64cm. 정주시박물관 소장. 사진: 필자.



4 금동함. 隋 606년. 정지사탑 지궁 출토.
높이 20.1cm. 정주시박물관 소장. 『地下宮殿の遺寶』, 圖 1.

3. 금동함 도4

606년에 만들어진 대석함 내부에서 발견된 녹색형 방형함 형식의 금동함에는 각 측면 양쪽에 구획을 만들어서 모두 8줄로 명문이 새겨져 있다.²¹ 제작연대는 대석함과 같은 606년 10월 8일에 해당하여, 수대에 함께 봉안한 사리장엄구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수나라 仁壽 3년(603) 5월 29일 정지사에서 무너진 탑을 수리하면서, 북위 興安 2년 11월 5일에 봉안한 석함과 사리 4과를 얻었는데, 이후 금그릇과 유리병 등 7중 사리기를 만들어 대업 2년 10월 8일에 전각 내부에 다시 안치했다고 한다.

수대의 內函으로 사용된 이 금동함은 外函이 되는 대석함도3과 같은 녹색형 방형함 형식으로, 이러한 형식은 남북조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사용된 사리장엄구 형식이다. 한편 이 금동함의 뚜껑 안쪽에는 ‘大中’, ‘開元寺僧’ 등의 묵서명이 있기 때문에, 당대에 새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² 이

21 금동함 명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면별로 다음과 같다. ① “大隋仁壽三年五月廿九 / 日靜志寺與四部衆修理” ② “廢塔掘得石函奉舍利有 / 四函銘云大代興安二年” ③ “十一月五日即建大塔更 / 作真金寶盃琉璃等瓶上” ④ “下累壘表裏七重至大業 / 二年十月八日內于殿內.” 명문은 『地下宮殿の遺寶』, p. 122, 圖 1의 설명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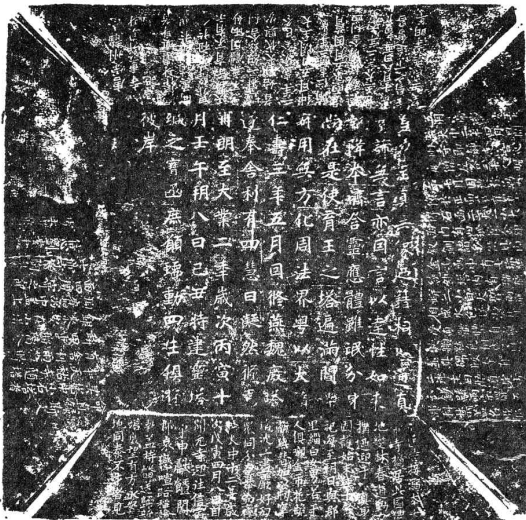
22 中野徹, 『隋·唐の遺跡と工藝』, 『世界美術大全集 東洋編 第4卷 隋·唐』(東京: 小學館,

렇게 사리장엄구의 일부분을 重葬할 때에 다시 제작해서 매납하는 것은 사리장엄구가 가진 종교적 성격과 기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4. 석함뚜껑 도5

녹정형의 석함뚜껑으로, 지궁 서남쪽에서 뒤집어진 채로 발견되었으며, 발견 당시에는 그 위에 각종 동전과 도자기들이 놓여 있었다.²³ 이 석함뚜껑에는 606년의 수대 명문과 858년의 唐代重葬記가 함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지사탑 지궁의 중장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²⁴ 윗면 정중앙의 방형 구획 안에는 수대의 명문이 새겨져 있고, 수대 명문의 정면 위쪽부터 시작하여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측면 사방에 당대중장기가 追刻되었다.

수대 명문은 방형 격자 구획을 하고 각 구획마다 한 글자씩 해서로 새겼다. 모두 11행으로, 각 행마다 12자씩 있다. 그에 비해 모죽임부분의 4면에 나누어 새겨진 당대 명문은 공간이 좁은 탓이었는지 세로줄은 맞았지만, 각 행



5 석함뚜껑 탁본. 隋 606년 / 唐 858년. 정지사탑 지궁 출토. 사방 길이 65cm. 정주시박물관 소장. 『文物』 195(1972.8), 圖 14.



6 은탑 ①. 唐 848년. 정지사탑 지궁 출토. 높이 14.5cm. 정주시박물관 소장

1997), pp. 100–101.

²³ 定縣博物館, 앞의 글, p. 40.

²⁴ 석함뚜껑의 명문 全文은 〈부록 1〉 참조.

마다 글자 수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여백이 남은 마지막 면을 제외하고 다른 3면은 모두 19행씩 새겼다. 수대와 당대 명문에는 흥안 2년명 석함을 발견해서 수대에 안치했다가 이후 당대 대중연간에 이것을 다시 발견하여 재매납했던 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5. 당대 은탑 도6

당대의 증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으로는 6각형의 단층탑 형식을 한 은탑이다. 이 은탑의 사방 벽 모서리에는 음각의 명문이 모두 94자가 새겨져 있다.

명문의 내용은肅昌 6년(846)에 탑과 불상이 모두 무너져서大中 2년(848)에 고치게 되었는데, 그 때 사리를 얻게 되어 다시 은탑을 만들어 사리를 안치했다는 내용이다.²⁵

이 은탑은 육각단층탑형 사리장엄구 중 가장 이른 예로서 매우 중요하다.²⁶

6. 석관 도7

지중 동남쪽에서 발견된 2개의 당대 석관은 전형적인 上圓下方形의 관이다. 그중 한 석관에는 꽃문양과 비천상이 새겨졌으며, 다른 석관의 측면에는龍紀元年(889) 4월의 명문이 새겨져 있었다. 그 내용은 정지사에서 용기원년 4월 佛龕을 고치면서 석함 하나를 얻었는데, 안에서 사리가 든 금관, 은관이 나왔기 때문에, 그해 7월 25일에 다시 묻었다는 것이다.²⁷ 즉 이 석관은 원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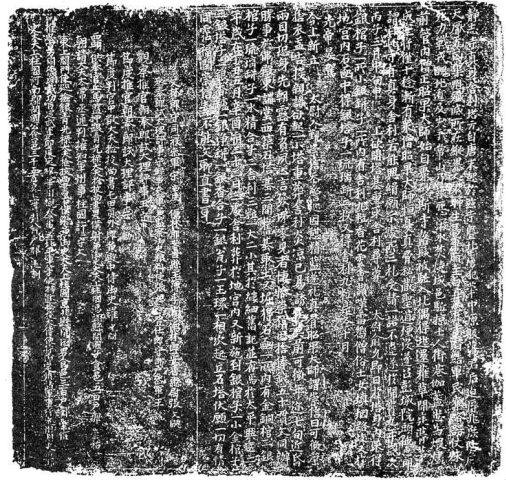
²⁵ “靜志寺 肅昌六年毀廢 佛像俱焚 寶塔全除 至大中二年再治 興功修建 舍利出興 □合分明 隨人心願 □寺僧衆與城隍善交同造銀塔子 再安舍利 伏願法界清泰 業海長銷 一切有情 □會眞記. 大中二年四月八日 比丘□眞定□銘俠于記.” 명문 내용은 河北省文物局 編, 앞의 책, p. 111, 도 10의 설명에서 재인용. 이제까지 이 은탑의 명문은 일본에서 판독한 大中四年(850)의 연대로 알려져 왔다. 『中國の金銀ガラス展』(大阪: 大阪市立博物館, 1992), pp. 130-131, 도 41; 주경미, 앞의 책(2003), pp. 312-317. 그러나 최근 중국 측에서 재판독한 자료에서는 大中 2년으로 고쳐 기술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최근 자료를 인용하였다.

²⁶ 육각, 혹은 팔각형의 다각탑형 사리장엄구는 중국적 탑 형식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형식이다. 탑형 사리장엄구의 발전에 대해서는 주경미, 「탑형 사리장엄구: 건축 이미지의 공예적 변용」, 『미술사와 시각문화』 5(2006.10), pp. 224-240.

²⁷ “唐定州靜志寺于龍紀元年歲在己酉四月 因修蓋佛龕 掘得石函一介 內有金棺銀槨 燦爛輝



7 석관 2점. 唐 899년 / 未詳. 정지사탑 지궁 출토.
높이 31.5cm/34.5cm. 정주시박물관 소장.
『地下宮殿の遺宝』, p. 31, 挿圖 23.



8 지석. 宋 977년. 정지사탑 지궁 출토. 66×64cm.
정주시박물관 소장. 『文物』 195(1972.8), 도 6.

지궁에 매납되었던 사리장엄구는 아니었지만, 10세기에 중수될 때에 탑의 지궁 안에 매납된 것이다.

7. 지석도⁸

지궁의 대석함 위에 놓여 있던 지석은 북송 太平興國 2년(977) 5월 22일의 명문을 가진 것으로, 전체 28행의 긴 글이 새겨져 있다.²⁸

지석 명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정지사에서는 송 태조가 진신사리를 찾기 위하여 탑을 열고자 하여,²⁹ 開寶 9년(976) 3월에 탑신에서 사리 9립과 사리장엄구 세트를, 그리고 지궁에서 사리 9립과 사리장엄구 세트를 찾았다. 그 해 10월 태조가 죽고 태종이 즉위했다.³⁰ 그 다음해인 太平興國 2년(977)에 崇信과 昭果大師가 새로 석탑을 세우는 과정에서 옛 탑기에서 사리 3립과 사리장

緇素同開 乃獲舍利 或隱或顯 或離或合 遂取其年七月廿五日重葬于斯 故記 都維那僧令鈞
上坐僧匡鑿 寺主僧元志.” 定縣博物館, 앞의 글, p. 40. 현재 이 石棺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²⁸ 명문의 畵文은 본문 말미의 〈부록 2〉 참조.

²⁹ “上欲開塔基重取舍利…” 〈부록 2〉 명문 7행 참조.

³⁰ “…是冬十月 先帝畱駕 今上新立…” 〈부록 2〉 명문 9-11행 참조.

엄구를 또 발견하여, 새로 세운 탑 지궁에 이들 사리장엄구를 함께 봉안했다고 한다. 즉 이 사리장엄구의 발굴과 재매납 과정에서 송 황실의 후원이 일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사리장엄구의 재매납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는 승신과 소과대사, 祔廷訓 등이 있다.

8. 송대 은탑 도9, 10

대석함 내에서 발견된 송대 은탑 2점은 모두 육각단층탑 형식에 속한다. 두 탑 모두 대좌는 나팔형으로 벌어진 부분과 양련좌 부분을 연결하여 만들었으며, 탑신부는 은판을 접어 만들었다. 탑신 주위에는 난간을 둘렀으며, 탑신 정면에는 자물쇠가 달린 문이 표현되어 있다. 뚜껑의 각 모서리 윗부분에는 각각 연꽃 봉오리 장식을 붙였고, 그 아래쪽에는 사슬로 풍탁을 매달았다. 상륜부에는 寶輪이나 寶蓋없이 연꽃 봉오리 모양의 寶珠形 장식만 있는데, 상륜부에서 각 모서리 쪽으로는 사슬로 연결하였다. 전체적인 탑의 형태는 서로 유사하지만, 세부 표현이나 제작기법은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그중 하나의 은탑에는 대좌부분과 지붕 주연부에 명문을 새겼으며 도9, 다른 하나의 은탑은 정면의 문 아래와 윗부분에 명문을 새겼다고 도10.³¹

대좌부분에 명문이 새겨진 은탑 도9에는 “造塔都維那”로 시작하는 여러 명의 승려들과 신도들의 이름과 발원문이 새겨져 있는데,³² 탑의 지붕 주위에 새겨진 명문은 재료의 무게를 표현한 별도의 것으로서 주목된다.³³ 이 은탑에는 정면 문의 양 측에 별도의 은판으로 만든 신장상을 오려서 붙인 점이 주목된다.

다른 하나의 은탑은 “善心寺” 승려가 발원한 것으로 도10,³⁴ 문의 양측면 판에 음각으로 신장상을 새기고 있다.

2점의 은탑은 모두 송대에 제작된 것으로, 송대 지식에서 새로 매납되었

31 이 두 은탑의 형식에 대해서는 周旻美, 「北宋代 塔形舍利莊嚴具의 研究」, 『中國史研究』 60(2009.6), pp. 81-84 참조.

32 “造塔都維那□□ 尼悟堅 尼瑞超 尼瑞敬 尼惠□ 尼□□ 俗弟子韓氏 俗弟子李氏 僧□□ 僧□節 俗弟子(施)氏 [瑞]引舍□器 [曾]氏造塔□□□ 願以此功德普霑諸有情 同歸解脫道 [齊]到涅槃城.” 『地下宮殿の遺寶』, p. 124, 圖 6의 설명에서 재인용.

33 “[銀][共][用]一十兩七分金一錢.” 위의 글에서 재인용.

34 “善心寺尼□□功德普□于一切我□與衆生皆共成佛道崇□” 河北省文物局 編 앞의 책, p. 112, 圖 14의 설명에서 재인용.



9 은탑 ②. 宋 정지사탑 지궁 출토. 높이 26cm. 정주시박물관 소장. 『定州文物藏珍』, 圖 13.



10 은탑 ③. 宋 정지사탑 지궁 출토. 높이 26.3cm. 정주시박물관 소장. 『定州文物藏珍』, 圖 14.

다고 기록한 3개의 은탑에 해당한다고 추정된다. 은탑 내부의 사리봉안방식은 자세하지 않지만, “선심사” 승려 발원의 은탑 내부에서는 사리가 발견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서 주목된다.

다음으로는 이상의 여러 유물에 나타난 명문과 현존 유물을 중심으로 정지사탑 지궁의 사리장엄 방식의 변천과정에 대해서 시대 순으로 고찰하면서, 명문 해석과 유물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석적 관점을 정리해 보겠다.

IV. 정지사탑 지궁의 사리장엄방식의 변천 과정

1. 북위시대: 453년 11월 5일 탑 1차 창건

정지사탑이 창건된 것은 북위 453년 11월 5일이다. 興安 2년(453)명의 소식함이 지궁에서 출토되었으며, 수당대의 석함뚜껑 도5에도 관련된 명문이 있기 때문이다. 석함뚜껑 중앙에 새겨진 수대 명문에 의하면³⁵ 수나라 仁壽 3년(603) 5월에 燕魏 廢塔을 발굴하여 사리 4매를 얻었다고 하며, 석함뚜껑에 추각된 당대중장기에 의하면 이 사리는 大代 흥안 2년 冬仲月 5일에 시작된 것이라고 하였다.³⁶ 한편 지궁에서 출토된 수대 금동함의 명문에서도 “흥안 2년 11월 5일에 대탑을 세웠다”는 내용이 새겨진 석함을 발견했다는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탑의 창건일을 정확히 알 수 있다.³⁷

탑이 창건된 흥안 2년(453)은 북위 文成帝가 즉위한 지 2년째 되는 해로, 그는 즉위 직후인 흥안 원년(452) 12월에 佛法 부흥의 조칙을 내렸다.³⁸ 이것은 선왕인 태무제가 446년에 내린 폐불을 6년 만에 끝낸 것으로, 문성제는 이후 각 지방의 중심지마다 사찰을 건립하기 시작했다.³⁹ 정지사탑은 당시 불교의 재흥과 함께 건립된 사찰에 세워졌던 탑으로 생각되지만, 창건 당시의 사찰명은 알 수 없다.

2. 수대: 606년 10월 8일 목탑 2차 재건

북위시대에 건립된 탑은 명문상 대탑이었던 것만을 알 수 있을 뿐, 탑의 형태나 재질 등은 알 수 없다. 이 탑이 언제 무너졌는지도 확실하지 않으나, 수대에는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다. 수대에는 이 탑지를 ‘연나라와 위나라때의 폐탑(燕魏廢塔)’이라고 불렀으므로, 창건당시의 사찰명은 알 수 없다. 정지사라는 寺名이 확실하게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수대부터이다.

정지사탑의 2차 재건은 수 文帝 인수 3년(606) 5월 29일 정지사의 사부 대중이 이 폐탑을 수리하려고 땅을 파는 도중에 북위시대의 석함과 사리장엄구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석함 내에는 사리가 모두 4개 들어 있었는데, 이 사리는 새로운 사리장엄구들과 함께 3년 뒤인 수 양제 大業 2년(606) 10월

35 이 석함뚜껑의 隋代 명문은 <부록 1>의 ①항을 참조.

36 “…茲舍利者 始□大代 興安二年歲次癸巳 冬仲月 五日…” <부록 1>의 ②항 참조.

37 “…大代興安二年 十一月 五日 卽建大塔…” 수대 금동함의 명문 全文은 본문 각주 21 참조.

38 “(興安元年) 十有二月戊申 祔葬恭皇后於金陵 乙卯 初復佛法.” 『魏書』 권 5, 高宗紀 제 5.

39 문성제의 復佛과 사찰 건립의 성격에 대해서는 鎌田茂雄(章輝玉 譯), 『中國佛教史 3 - 南北朝의 佛教(上)』(도서출판 장승, 1996), pp. 323-328 참조.

8일에 석함에 봉안되어 탑에 매납되었다.⁴⁰

정지사탑 지궁 북벽에 놓여 있던 대석함도3은 뚜껑 윗면 명문에 의해 수대 재건때 봉안된 사리석함으로 추정되는데, 송대에도 역시 사리장엄구의 外函으로 사용되었다.

역시 지궁에서 출토된 수대 금동함의 명문에서는 당시 사리장엄이 금으로 만든 寶盃와 유리 등으로 만든 瓶으로 모두 7중의 사리용기를 새로 만들어 殿內에 매납했다는 것으로 보아,⁴¹ 수대에 봉안된 사리장엄구는 유리병과 金寶盃, 금동함, 석함 등을 포함해서 모두 7중이었다고 추정된다.

한편 석함뚜껑도5에 추각된 당대증장기에 의하면 당대 848년에 사리석함 2개를 땅속에서 얻었으며, 큰 석함에서 4개의 珉像과 금은제 비녀와 팔찌 등의 공양구, 金函 등이 들어 있었다. 금함 안에는 七珠纒繞銀塔, 즉 일곱 가지 보배로 꾸며진 은탑이 있었고, 그 은탑 안에 사리를 봉안한 유리병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백색, 다른 하나는 푸른색이었다.⁴² 그러므로 당대증장기에 기록된 당시 발굴된 수대의 사리장엄구는 유리병, 七珠纒繞銀塔, 금함, 석함 등 4중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4중 사리장엄구를 발굴했다는 당대증장기의 기록은 앞서 수대의 금동함 명문에서 7중 사리장엄구를 매납했다는 기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수대 금동함의 명문에서는 당대에 발굴되었다는 은탑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수대 기록과 당대 기록의 관련성을 고려한다면, 원래 수대에 매납했던 사리장엄구는 유리병-금보완-칠진료요은탑-금동함-석함 등과 재질을 알 수 없는 용기 하나를 포함한 7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명문 상에서는 수대에 봉안된 7중 사리장엄구가 9세기에 발굴될 때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존 유물과 수대 명문 및 당대 명문간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점으로 볼 때, 8세기경의 또 다른 증장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당대증장기에 등장하는 유물 중에서 석함과 금함은 현재도 남아 있는 유물로 생각된다. 아마도 대석함도3과 금동함도4이 이에 해당한다고 추정되는데, 명문에서 금함으로 기록된 유물의 실제 재질이 금동함으로 밝혀진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 금동함은 뚜껑부분이 858년의 증장 때에

40 명문 원문은 <부록 1>의 ①항 6-9행 참조.

41 “...更作眞金寶盃琉璃等瓶 上下累疊表裏七重…內于殿內.” 全文은 본문의 각주 21 참조.

42 “...內金函 函中有七珠纒繞銀塔 內瑠璃餅二 小白大碧…” <부록 1>의 ③항 참조.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가 제작, 혹은 수리에 대한 내용을 당대증장기에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수대 명문에 등장하는 칠진료요은탑의 존재도 현존하는 유물 중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정지사탑 지궁에서 출토된 은탑 4점은 모두 육각다층탑 형식을 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당대에, 다른 2개는 송대에 제작되었다. 현재 공개되지 않은 은탑 1점은 당대 은탑과 유사한 형식으로, 정문 양쪽면에는 하강하는 비천상이 새겨져 있는데, 보배, 혹은 보석 장식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워서 명문상의 칠진료요은탑으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와 같이 같은 곳에 매납된 사리장엄구에서도 수대 명문과 당대 명문 및 실제 유물의 상관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명문과 현존유물과의 관계가 서로 불일치하는 것은 기록의 부정확함을 뜻하기보다는, 기록자의 시각에 따른 기술방식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명문상의 유물을 그대로 현존 유물에 대입시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방식은 명문 기록자의 시각을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중국학자 宿白은 명문에 나오는 두 개의 유리병이 현존 유물 중에서 무색통형유리그릇과 청색통형유리그릇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⁴³ 그런데 명문상의 유리병은 수대에 봉안된 것이며, 지궁에서 출토된 현존 유리병의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유리병들이 문헌기록에 나오는 유물과 동일한 것인지를 단언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편 수대의 정지사탑이 어떤 형태와 재질의 탑이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수대 금동함의 명문 중에서 사리장엄구를 “전각 안에 넣었다(內于殿內)”는 내용이 주목된다. 즉 사리가 안치된 곳을 “殿”으로 지칭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수대에 세워진 탑은 전각형, 즉 방형 목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3. 당대: 858년 4월 8일 탑 3차 재건, 889년 7월 25일 4차 보수

당대증장기에 의하면 북위시대에 창건된 탑은 무너졌다가 수대에 다시 재건되었다. 수대에 재건된 탑은 당대까지 존속했으나 회창연간의 폐불 때에

⁴³ 『地下宮殿の遺寶』의 圖 49와 52가 수대 명문상의 유리기에 해당한다고 추정했다. 宿白, 『定州工藝與靜志, 淨衆兩塔地宮文物』, 『地下宮殿の遺寶』(東京: 出光美術館, 1997), p. 20.

절과 탑이 모두 파괴되었다. 정지사탑 지공의 당대 사리장엄에 대한 기록은 당대증장기, 석관, 은탑 등에 나타나지만 모두 단편적이어서 이들만으로는 구체적인 당대 사리장엄의 상황을 알 수 없다. 한편 당대 사리장엄에 대한 가장 자세하고 종합적인 기록은 송대의 지식에 기록된 당대 사리장엄구의 발굴 과정에 대한 것이다.

회창연간에 파괴된 정지사는 宣宗 大中 2년(848)에 새로 지어졌는데, 당시에 수대의 석함과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다. 당시 발굴된 사리는 대중 12년(858) 4월 8일에 건립된 새로운 탑에 다시 봉안되었다. 당대증장기에는 당시 새로 봉안한 사리장엄구와 옛 사리장엄구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858년의 정지사탑 재건은 같은 해에 宣宗이 내린 천하의 祖師塔 수리 칙령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는데,⁴⁴ 현재의 당대증장기 명문에서는 이러한 칙령과의 관계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한편 당대증장기의 맨 마지막에는 탑의 내부에 봉안된 小石塔에 대한 기사가 보여 주목된다. 이 소식탑은 원래 天祐寺에 있던 것으로, 사리 2립과 유리, 금, 은, 칠의 4중으로 된 餅으로 구성된 4중의 사리장엄구가 봉안되어 있었다고 한다.⁴⁵ 정확하게 이 소식탑의 존재가 대탑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공 이외의 사리봉안처와 관련된 존재로서 주목된다.

지공 대석함 내에서 출토된 848년명의 은탑도⁶은 당시의 불사리장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물로서 주목된다. 이 은탑 명문에 의하면 정지사는 회창 6년(846) 불에 타버렸고 大中 2년(848)에 재건되면서 사리가 나타나 승도들이 銀塔子를 만들고 사리를 공양했다고 한다.⁴⁶ 즉 이 탑은 새 탑이 건립되기 전에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서 만든 塔形舍利莊嚴具로서, 이후 지공 안에 봉안되었던 것이다. 아마도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서 유리병이나 다른 작은 용기가 내부에서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출토 상태와 공반 유물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 함께 봉안된 당대증장기에는 이 은탑의 존재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고, 수대에 봉안되었다가 출토된 칠진요로운탑의 존재만 기록되어 있

44 주경미, 앞의 책(2003), p. 313. 宣宗의 칙령은 “大中十二年 勅天下諸寺修治諸祖師塔”이라는 내용으로 『佛祖統紀』 권 43에 나온다(T2035, 49:338b).

45 “...其塔中 小石塔者 本天祐寺隨塔 有舍利兩粒 貯餅四重 瑠璃金銀漆...” 〈부록 1〉의 ⑤항 명문 참조.

46 명문 내용은 본문 각주 25참조.

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명문상의 내용과 실제 유물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된다. 이 은탑은 수대의 칠진요로운탑을 대체해서 9세기에 새로 만들어진 탑형사리장엄구로 추정되며, 당시 불사리를 재매납 하던 사람들에게는 이 은탑의 존재를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당대증장기에서는 누락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 은탑과 당대증장기의 관계를 통해서 당시 명문의 내용은 당시 봉헌자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진 부분을 중심으로 선택되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 봉안된 유물의 상황을 그대로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명문과 유물의 불일치 문제는 정지사의 경우, 북위시대부터 수대, 당대, 그리고 이후 송대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정지사 지궁에서 출토된 龍紀元年(889)명 석관도7은 858년 정지사의 재건보다 30여 년 지나서 만들어진 것으로, 아마도 지궁과는 별도의 탑 보수와 관련된 유물로 추정된다. 석관의 명문에 의하면 889년 4월 8일에 佛龕을 수리하면서⁴⁷ 발견된 사리석함에서 金棺과 銀槨을 발견했고, 다시 같은 해 7월 25일에 재봉안했다고 한다.⁴⁸ 이 석관의 명문은 당대증장기(858)의 기록 이후의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재봉안된 것이다. 이 석관을 비롯한 당대 후기 유물들과 당대증장기 관련 유물들과의 상호 관계는 역시 송대 지석을 통해서만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다.

977년의 연대를 가진 송대 지석도8<부록 2>에 의하면 당대에 세워진 정지사탑은 요나라와의 전쟁 도중에 또다시 완전히 파괴되었다. 송 태조 開寶 9년(976) 3월 중순에 탑신부에서 銀棺子 1, 小銀餅子 1, 사리 9립을 발견하였으며,⁴⁹ 그 직후에 다시 지궁 안의 석함에서 銀塔子 1, 琉璃餅 2, 사리 9립을 별도로 발견하였다.⁵⁰ 이후 태조가 승하하고 태종이 즉위한 다음에, 새로운 석탑이 세워졌다. 당시 공사 도중에 옛 탑기(舊基)에서 또 다른 사리 석함 세트를 발견했는데, 내부에는 金銅棺 2, 銀棺子 1, 琉璃餅子 1, 水精舍利子 2, 사리 3립 등이 봉안되어 있었다.⁵¹

47 여기서의 불감이 어느 곳에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탑신부에 있던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48 본문 각주 27의 명문 참조.

49 “...於塔身內取得 銀棺子一所 小銀餅子一所 內有舍利九粒...” <부록 2>의 7-8행.

50 “...又於地宮內石函中得 銀塔子一 琉璃餅二枚 又得舍利九粒...” <부록 2>의 9행.

51 “...舊基取土 又掘得石函一所 內有金銅棺二 銀棺子一 琉璃餅子一 水精舍利子二 舍利三粒 一大二小...” <부록 2>의 14-15행.

이러한 송대 지식의 내용으로 볼 때, 정지사탑에서는 모두 3세트의 사리장엄구가 각각 탑신, 지궁, 옛 탑기에서 출토되었으며, 이들 유물이 모두 지궁에 함께 봉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송대 지식에 기록된 3세트의 사리장엄구를 정리해보면 표2와 같다.

표 2 송대 지식에 기록된 당대 정지사 사리장엄구

	출토위치	출토물	관련유물	수당대 명문과의 관계
1	塔身	銀棺子 1	銀槨	천우사 소석탑 사리장엄구와 일부 유사점이 있음.
		小銀餅子 1	銀瓶	
		사리 9립		
2	地宮	石函 1	大石函	수대 사리장엄구의 구성(유리병-은탑-금동함-석함 등 7중)과 비슷하지만 간소해짐.
		銀塔子 1	唐 大中2년명 銀塔	
		琉璃餅 2	유리병	
		사리 9립		
3	舊基	石函 1		金棺, 銀槨, 석함으로 구성된 당대 용기원년명 사리석관의 사리장엄구와 유사점이 있음.
		金銅棺 2		
		銀棺子 1	銀槨	
		琉璃餅子 1	유리병	
		水精合子 2		
		사리 3립		

그런데 탑신에 봉안되어 있던 銀棺과 銀餅으로 이루어진 사리장엄구의 구성은 정지사탑 출토 수당대 명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당대증장기 말미에 기록된 정지사탑 내부에 안치되었다고 하는 천우사의 소석탑 사리장엄구는 유리, 금, 은, 칠로 만든 병을 포함한 것이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⁵² 은병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예이다. 그러나 천우사의 기록에서는 은관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대증장기의 기록과 송대의 발굴기록을

⁵² “其塔中 小石塔者 本天祐寺隨塔 有舍利兩粒 貯餅四重 琉璃金銀漆 安在小塔。” 〈부록 1〉의 ⑤항 참조.

서로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다.

한편 송대에 지궁에서 발굴한 사리장엄구는 유리병, 은탑, 석함 등 3중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이 구성은 기본적으로는 대석함에 봉안되었던 수대 사리장엄구의 구성과 관련을 보이면서도 간소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대의 대석함에는 원래 7중의 사리장엄구를 봉안했었지만, 당대 9세기에 발굴되었을 때에는 이미 유리병-은탑-금함-석함의 4중으로 간소화되었고, 송대에 발굴되었을 때에는 다시 유리병과 은탑, 석함 등 3중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아마도 송대에 지궁에서 발견된 은탑은 당대 848년에 만들어진 은탑도⁶ 일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은탑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여하튼 지궁의 사리장엄구는 기본적으로 수대에 마련된 유리병-은탑-석함의 구성을 기본적으로 따르면서도 재봉안할 때마다 일부 사리장엄구를 다시 제작하여 대체하기도 하고, 장엄방식도 약간씩 간결해지는 등의 변화가 계속 일어났다. 그렇지만 명문상에서는 그러한 변화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지 않으며, 수리, 혹은 대체한 유물에 대한 언급도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

지궁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는 수대의 금동함도⁴ 등이 현존하고 있지만, 송대 지식의 명문 중에는 금동함, 혹은 금함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 또한 석함의 경우에는 북위대 453년명 석함, 수대 606년명의 대석함, 606년과 858년명의 석함 뚜껑 등 적어도 3개가 송대 이전에 지궁에 봉안된 유물로서 현존한다. 그런데 송대 지식에는 그중에서 2개의 석함만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송대 지식에서 누락된 현존 유물들의 존재는 지식의 내용이 완벽하지 않으며, 당시 기록자의 시각에 의해서 명문 내용이 취사선택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 아마도 수대의 금동함이나 북위시대의 석함 등은 옛 사리장엄구로서의 ‘聖物’이라는 지위는 인정되었지만, 실제적인 사리장엄구의 기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떨어져서 명문상에서는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옛 탐기에서 발견된 석함-금동관 2-은관-유리병-수정합자로 구성된 다중의 사리장엄구 세트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889년명 당대 석관의 명문에 기록된 금관-은관-석함의 3중의 사리장엄구와 가장 가깝다. 그렇지만, 명문상에서는 石函으로 기록되었지만 실제 외함이 石棺이었는지 아닌지를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당대 석관의 명문에는 유리병이나 수정합자의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상관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지궁 내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별도로 탐기에서 발견되었다는

점과 금관, 은곽의 존재가 나타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들의 상관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된다. 현재 지궁 출토품 중에는 금동관의 존재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금관과 은곽의 존재는 여러 점이 알려져 있다. 한편 지궁 출토 현존 유물 중에는 수정합은 없지만 雙鳥文玉盒과 같은 예가 있는 것으로 볼 때,⁵³ 송대 지식의 명문과 현존 유물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시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하튼 송대에 발굴된 옛 사리장엄구들은 대체로 원래 상태 그대로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가급적 지궁 내에 다시 봉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옛 유물, 즉 聖物들은 발굴과 재봉안과정을 여러번 거치면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는 다른 용도로 변하거나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형상으로 보수되기도 하였으며, 봉안 위치나 중요성은 재봉안 과정 때마다 크게 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수당대의 명문 및 출토유물과 송대 지식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서로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기록의 내용과 유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기록끼리의 관계가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들 유물과 명문들을 통해서 당대 정지사탑의 사리장엄구를 재구성해 보면, 당시에는 한 탑에서 탑신, 지궁, 탑기 등의 세 곳에 각각 별도의 사리장엄구를 봉안했음을 알 수 있다. 탑신에는 은관-은병의 2중, 지궁에는 석함-은탑-유리병의 3중, 탑기에는 석함-금동관-은관-유리병-수정합자의 다중 사리장엄구가 발굴되었다는 송대 지식의 기록은 당시 유물 발굴 상황을 알려 주기는 하지만, 실제 발굴 유물은 현존 유물의 존재로 볼 때 훨씬 많았을 것이다. 송대 지식의 내용은 함께 출토된 당대증장기의 기록과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봉안되었다고 해서 옛 기록을 참고하여 유물의 발굴과 재봉안과정을 기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송대에는 이들 세 곳에서 발굴된 사리장엄구 세트를 모두 새로 정비한 지궁 안에 재매납했으며, 당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 대표적인 성물만을 중심으로 명문에 남겼다. 그러므로 송대 지식은 당대 사리장엄구의 이해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역시 송대 사람들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당대 유물과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정지사의 예와 같이 한 탑의 사리장엄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발굴과 재매납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이전에 봉안되었던 사리장엄구는

53 『地下宮殿の遺宝』, 圖 27 참조.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재봉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재봉안시 기록한 명문 중에서는 이들 재봉안품의 존재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다르게 표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유물들의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때, 명문의 기록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현존 유물을 이해하는 데에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사리장엄구의 연구에 있어서는 이러한 명문 기록자의 관점과 현존 유물 사이의 괴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명문에 현존 유물을 꺾어 맞추는 기계적인 해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⁵⁴

4. 북송대: 977년 5월 22일 5차 재건(석탑)

997년 5월 22일 세워진 송대의 정지사탑은 5번째로 재건 및 보수된 것으로, 송대 지식층을 통해 당대 사리장엄구와 송대 사리장엄구와의 관계를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매납된 이후 20세기에 지궁이 발견될 때까지의 보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존하는 지궁 출토 유물들은 북송 초기의 불사리장엄 방식을 연구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송대 지식층에 의하면 개보 9년부터 태평흥국 2년 사이에 정지사탑 탑지에서는 3세트의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고, 이들은 모두 새로 건립된 탑의 지궁에 봉안되었다고 한다. 당시 이전의 유물들과 함께 새로 만들어 봉안한 장엄구로는, 銀棺子 1점, 小金棺子 3점, 銀塔子 2점, 銀香爐 1점, 銀淨瓶 1점, 銀香合子 1점, 銀瓮子 1점, 玉環 1점 등이 기록되어 있다.⁵⁵ 이중에서 사리를 직접 담은 장엄구는 銀棺子, 小金棺子, 銀塔子였다고 생각되며, 銀香爐, 銀淨瓶, 銀香合子, 銀瓮子, 옥환은 공양구로 보인다. 정지사탑 지궁에서는 실제로 3개의 金棺과 3개의 銀槨, 4개의 銀塔 및 송대 지식층에 기록된 각종 은기들이 출토되어, 지식의 내용과 같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송대 지식층에는 백여 점이 넘는 막대한 양의 도자기나 동제 및 목제 불교조상을 비롯한 기타 출토 유물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⁵⁴ 이러한 연구관점과 관련하여 최근 논의되는 석가탑 출토 유물과 목서지편의 상관관계 연구는 앞으로 주목해야 할 과제이다. 국립중앙박물관·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 석가탑 유물 2 - 중수문서』(시티파트너, 2009); 불교문화재연구소 편, 『불국사 삼층석탑 목서지편』(불교문화재연구소, 2009) 참조.

⁵⁵ “...二處舍利 葬於地宮內 又新施到 銀棺子一 小金棺子三 銀塔子二 銀香爐一 銀淨瓶一 銀香合子一 銀瓮子一 玉環一 相次起立石塔...” 〈부록 2〉의 16-17행 참조.



11 金棺. 宋. 높이 4.9cm. 정지사탑 지궁 출토. 정주 시박물관 소장. 『地下宮殿の遺宝』, 圖 2.

않다. 또한 송대 지식에는 현존하는 북위시대의 석함, 수대의 금동함, 당대 석관과 같은 주요 장엄구에 대해서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송대 지식에는 기록자의 시각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여겨진 사리장엄구와 공양구만이 기록되었는데, 이들은 실제 지궁 봉안 유물 중에서 극히 일부일 뿐이다. 송대 지식에 기록된 사리장엄구와 현존 유물과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명문에 보이는 유물과 현존 유물의 재질이나 숫자 등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

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송대의 중장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일부 유물들을 대체하거나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정지사탑에서는 모두 3개의 金棺이 출토되어, 송대 지식에 기록된 小金棺子 3점이 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명문에 의하면 이 3점은 모두 송대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중에서 2점의 형태가 현재 공개되어 있는데, 두 金棺은 형태와 크기가 매우 유사하다⁵⁶ 上圓下方形的 唐代 棺槨形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각 측면에는 슬퍼하는 승려들이 표현되어 있고, 앞면에는 문이, 뒷면에는 佛足이 표현되어 있다. 뚜껑에는 당초문을 선각과 어자문기법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기대에는 투각문양이 있다.

송대 지식에서는 탑신과 옛 탑기에서 각각 銀棺子 1개씩을 발굴했으며, 지궁에는 銀棺子 1개를 새로 만들어 봉안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식 내용에 의하면 당대 銀棺子 2점과 송대 銀棺子 1점이 지궁에 봉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정지사 지궁에서는 모두 3점의 銀槨이 출토되어 송대 지식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그렇지만 이 은곽 중에서 1점의 형태만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⁵⁷ 아직까지는 서로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현재 공개된 은곽은 역시 관곽형 형식에 해당하며, 난간이 달린 장식적인 器臺가 있는 점이 특징이다. 관의 양 측면에는 용과 호랑이가 선각으로 새겨져 있어서

⁵⁶ 이 금관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孫彦平, 「北宋鑿花舍利金棺」, 『文物春秋』 40(1998.1), p. 82.

⁵⁷ 『地下宮殿の遺宝』, 圖 6 참조.

四神圖의 일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은곽이 당대 후기의 것인지 송대의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른 2점의 은곽 양식과 비교할 수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인 편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송대 지식에 기록된 은탑은 지궁에서 출토된 당대 은탑 1점과 새로 만들어 봉안한 은탑 2점 등 모두 3점이다. 그중에서 송대의 은탑은 명문이 새겨진 2점으로 도 9, 10, 이것은 지식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단층 육각탑 형식의 송대 은탑에 새겨진 명문 내용은 모두 발원자와 발원 내용에 대한 것이며 구체적인 제작연대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송대 지식과의 관계로 볼 때, 977년이 제작연대의 하한이 된다. 기본적으로 이 은탑의 형태는 848년명 당대 은탑 도 6의 형식을 따르면서, 좀 더 장식적이고 복잡한 구조물로 변화된 것이다. 아마도 송대 지식에 기록된 지궁 출토 당대 은탑은 848년명 은탑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현재 미공개된 은탑 1점은 다른 은탑들과 마찬가지로 단층 육각탑 형식인데, 정면에는 문이 새겨져 있고 그 좌우에는 비천상과 칠보문 등이 새겨져 있다. 이 은탑의 존재는 송대 지식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양식으로 볼 때 당대에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 미공개된 은탑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양식과 제작기법 연구를 통해서 편년이 가능해 질 것이다.

송대 지식에 의하면 당시 발굴되었던 옛 사리장엄구에서 사리를 담은 용기는 은병, 혹은 유리병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정지사탑 지궁에서는 수십 점의 유리기가 출토되었다. 이 유리병들은 재질로 보아 중국산 유리와 이슬람산 유리로 나뉘는데, 당대 이전의 유리기로 추정되는 것은 많지 않다.⁵⁸ 그러므로 이들 유리기 중 어느 것이 명문에 등장하는 유리병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 지궁 출토품 중에는 은병 2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 중 1점은 지식의 내용과 관련하여 唐代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

송대 지식에서 새로 봉안한 공양구로 기록된 銀香爐, 銀香罇, 銀淨瓶, 銀瓮子, 玉環 중에서 은향로, 은향합자, 은정병은 실제로 지궁에서 출토되었다 도 12, 13, 14. 이와 같이 향로, 향합, 정병으로 구성된 공양구 세트는 불사리장엄 의례에서 사용된 가장 중요한 의례용품이었다. 사리의 공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례는 향을 피우는 것으로, 사리장엄구와 함께 향로가 지궁 내에 매

⁵⁸ 송대 유리기에 대해서는 安家瑤, 「試探中國近年出土的伊斯蘭玻璃器」, 『考古』 279(1990.12); 眞道洋子, 「ガラス器」, 『世界美術大全集・東洋編 第5卷 五代・北宋・遼・西夏』(東京: 小學館, 1998), pp. 257-260.



12 은향로. 宋 977년. 높이 25.5cm. 정지사탑 지궁 출토. 정주시박물관 소장. 『地下宮殿의遺寶』圖 8.



13 은향합. 宋. 지름 8cm. 정지사탑 지궁 출토. 정주시박물관 소장. 『地下宮殿의遺寶』圖 9.



14 은정병. 宋. 높이 26.8cm. 정지사탑 지궁 출토. 정주시박물관 소장. 『地下宮殿의遺寶』圖 7.

납되는 것은 이미 당대부터 찾아 볼 수 있다.⁵⁹ 아마도 이러한 사리 공양 의례는 송대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향로와 향합의 세트가 지궁 내에 함께 봉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향 공양의례와 정병과의 관계는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정병의 기능이 淨水의 공양뿐만 아니라 향 공양 의례 때에 消火 기능을 겸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지사 지궁에서는 송대의 은제 공양구 3점 세트를 모방한 것으로 생각되는 유사한 형식의 향로, 향합, 정병 등의 도자기들이 여러 점 봉안되어 있어 주목된다.⁶⁰ 정요에서 제작된 이들 각종 陶製 향합, 정병, 향로들은 당시 여러 계층의 공양인들이 발원하여 만든 것으로, 묵서명이 기록된 예들도 있다. 그러나 지식에는 이렇게 도자기로 만들어진 공양구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⁵⁹ 정지사 지궁에서는 대석함 앞의 佛壇 위에 柄香爐 2점이 놓여 있었는데, 이것은 古式 의례를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지궁 내에 향로를 봉안한 가장 이른 현존 예는 첨서성 선유사 지궁 출토품이 있으며, 그 외에 당대 경산사 및 법문사 지궁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향로가 출토되었다. 당대 사리장엄과 향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周昞美, 『唐代 慶山寺地宮 出土 佛舍利莊嚴의 新研究』, 『中國史研究』 29(2004. 4), pp. 94-96 참조.

⁶⁰ 『地下宮殿의遺寶』, 圖 63, 66, 58 등 참조.

그 외에 송대에 새로 봉안된 공양구로는 은옹자와 옥환이 있는데, 은옹자는 현재 유물 중에서 정확하게 어느 유물에 해당하는지 자세하지 않다. 지궁 내에서 옥환은 여러 점이 출토되었는데, 역시 구체적으로 어느 유물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장신구의 일종으로 추정된다. 옥환과 같은 장신구를 사리장엄구와 함께 공양구로서 봉안하는 풍습은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정지사의 경우에도 기록에 의하면 수대부터 그러한 풍습의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당대중장기에 의하면 대종 2년에 발굴된 석함 안에서는 금으로 만든 비녀와 팔찌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공양구들이 발견되었다.⁶¹ 현존 유물 중에서 수대 장신구의 실례를 찾기는 어렵지만, 기록을 통해 佛舍利를 위한 장신구의 공양이 수대의 전통을 계승하여 송대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송대 지식에 기록되지 않은 지궁 출토 각종 공양구 중에서 사리장엄 및 공양 의례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것은 지궁 석함 앞면에 놓여 있던 목제 탁자의 존재와 나무, 도자기, 유리 등으로 만든 꽃과 과일의 모형들이다.^{15, 16.}⁶² 이들은 사리 공양을 위한 佛殿, 혹은 佛壇의 설치와 공양, 혹은 모형 봉안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모형의 제작은 지궁내에 사리 공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사리장엄구 앞에 꽃과 과일을 올려놓은 불전이나 불단의 모방 배치는 요대 및 송대에 들어와서 상당히 발달한 사리장엄 방식이다.⁶³ 정지사탑 지궁의 불전 모방 배치는 연대가 알려진 비교적 이른 예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송대의 정지사 중장 과정을 기록한 지식에는 이러한 공양 의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현존 유물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을 뿐이다.

그 외에 정지사 지궁에서는 목조불좌상과 목조보살상감 등 여러 불교 조상이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불교조상의 존재에 대해서도 역시 지식을 비롯하여 여러 명문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들 불교 조상은 사리 공양을 위해

61 “…得石函二 一大一小 大函內有 四珉像 金銀釵釧 諸多供具…” 〈부록 1〉의 ③항 참조.

62 다른 예로는 『地下宮殿の遺寶』, p. 31의 挿圖 18, 19 및 圖 35, 36 등 참조.

63 요대 및 송대 지궁에서는 이러한 불전, 혹은 불단의 설치를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1993년 발굴된 12세기 초반의 요녕성 심양 新民 遼濱塔에서는 하층 북궁 북벽에 塼造 보살형 대일여래좌상을 봉안하고, 그 앞에 사리합과 은탑, 목탑 등과 佛壇과 유사하게 설치한 공양구들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沈陽市文物考古研究所, 「沈陽新民遼濱塔宮清理簡報」, 『文物』 599(2006.4), pp. 47-47.



15 유리 포도 1송이. 北宋. 정지사탑 지궁 출토. 길이 16cm.
정주시박물관 소장. 『定州文物藏珍』, 圖 100.



16 陶製 복숭아. 北宋. 정지사탑 지궁 출토.
높이 9.6cm. 정주시박물관 소장.
『地下宮殿의 遺寶』, 圖 85.

송대에 봉안된 공양물의 일종이거나 불전 배치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불교 조상들이 사리 공양 의례에서 사용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공양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송대 지궁과의 관계를 통해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송대 정지사 지궁에서는 지식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고, 지식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또한 지궁에서 출토된 수당대의 명문과 송대 지식의 당대 유물 발굴 기록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으며, 송대 지식의 기록이 극히 일부 유물에만 정확하게 일치함을 고려한다면, 출토 명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지궁 출토품 전체를 연구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명문과 출토 유물과의 관계는 명문 기록자의 관점을 고려하면서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명문과 출토품과의 불일치 및 명문의 부정확한 기술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봉안된 사리장엄구의 연구에서는 명문의 존재가 중요하긴 하지만, 후대 기록에 대한 맹목적인 신빙보다는 출토 유물의 존재 자체를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정지사탑 지궁의 당송대 명문과 출토품과의 상관관계가 서로 불일치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술되는 것은 명문 기록자의 관점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사리장엄 방식의 변천과정을 고찰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V. 맺음말

이상에서 하북성 정주시 정지사탑 지공의 변천과정에 대해서 지공에서 출토된 각종 명문과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정지사탑은 북위시대에 처음 창건되어 수대, 당대, 북송대에 이르기까지 5차에 걸쳐 재건 및 보수되었으며, 그 지공에서는 여러 시대의 유물들이 혼재된 채로 출토되어 북송대의 탑의 개축 및 불사리의 재매납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재매납된 유적의 시대적 층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이러한 유적 출토품의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송대 정지사탑의 지공은 昭果大師라는 승려의 발원과 황실의 후원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주변 사찰의 승려 및 인근 지역 신도들의 후원을 받아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지공의 중창불사는 황실의 후원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승려와 지역 신도들의 대대적인 참여로 완결되었던 것이다. 송대 지공의 재봉안 과정에 대해서 기록한 지식에는 탑 건립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승려와 공양자 및 황실과의 관계, 그리고 새로 제작하여 매납한 주요 사리장엄구와 은제 공양구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명문 기록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선택되어 기록된 것으로, 이들 지식에 기록된 새로운 사리장엄구와 은제 공양구는 송 황실에서 하사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 외의 다른 귀족이나 승려, 지역민들에 의해서 발원된 공양구들에 대해서는 지식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인근 지역의 승려 및 신도들에 의해서 봉안된 백자공양구들은 정지사와 가까운 定窯에서 제작된 것이며, 대부분 제작연대가 太平興國 2년(977)으로 되어 있다. 즉 이러한 정요 백자들은 지공 내에 공양구로서 봉안할 것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제작된 것이지만, 지공 전체의 봉안 과정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별도의 종이나 천에 기록된 봉안품 명세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민간 발원 공양구들과 송대 이전 출토 유물의 재봉안 관계에 대해서는 현존 유물 자체의 명문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각 시대별 사리장엄 방식의 변천과정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정지사탑 지공 출토 명문과 사리장엄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리장엄이 이루어진

당시의 기록과 뒷시대의 발굴 기록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명문 내용과 현존 유물 사이에서도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명문과 현존 유물과의 관계는 좀 더 명문 기록자의 관점을 고려하면서 파악되어야 하며, 명문이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10세기 이후가 되면 동아시아에서는 탑이나 불상과 같은 종교 유적이거나 유물에 대한 공양의 일환으로 보수 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현존하는 불교 관련 유적이거나 유물 중에서 이러한 보수 과정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물은 매우 드문 편이다. 특히 사리장엄구와 탑의 경우에는 聖物의 顯示를 위해서 발굴과 재매납이 근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보수 공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물들의 복합적 성격에 대해 미술사학계에서는 이제까지 뚜렷한 해석적 관점이 없이, 개별 유물이나 명문 자료의 분석에만 치중해 왔다. 특히 현존 유물과 명문 자료상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서로 단순하게 대비하여 분석하는 연구 방식이 흔히 사용되었다. 그러나 정지사탑 지궁 출토품으로서와 같이 명문자료와 유물과의 상관관계는 단순한 1:1 대응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유적 자체의 변화과정에 대한 좀 더 복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했다. 또한 관련 기록이나 명문 자료를 맹목적으로 신빙하기보다는 기록자의 시각을 고려한 비판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지사탑 지궁 출토품을 중심으로 명문과 출토 유물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이 다층적 시간 범위를 가진 유적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적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 관점은 중국 내의 송요대 탑 출토품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의 황룡사탑 출토 유물, 석가탑 출토 유물 및 묵서지편의 연구 등과 같이 다층적 시간 범위를 가진 유적의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주제어(Key Words)
北宋, 舍利, 再建, 靜志寺, 銘文, 佛教美術
Northern Song, Buddha's Relic, Reconstruction, *Jingzhishi* temple, Inscription, Buddhist Art

〈부록 1〉 石函蓋 銘文 (隋 606년 / 唐 858년)⁶⁴

① 石函蓋 중앙 隋代 銘文

- 1행 : □日主眞寺像□籍柯□通眞
- 2행 : □諦無言亦因言以達性如來
- 3행 : □降本濟合靈應體豈唯珉分身
- 4행 : 尙在是使育王之塔遍滿閭□
- 5행 : □用無方化周法界粵以大隋
- 6행 : 仁壽三年五月因修燕魏廢塔
- 7행 : 遂奉舍利有四慧日□然修安
- 8행 : 再朗至大業二季歲次丙寅十
- 9행 : 月壬午朔八日己丑特建靈塔
- 10행 : 緘之寶函庶願蠕動四生俱□
- 11행 : 彼岸

② 石函蓋 唐代重葬記 1면⁶⁵

唐定州靜志 / 寺重葬眞身 / 記 / 佛從化身遺眞身者 / 何異鎮□於□ / 界降□祉於□ / 天欲示有不有示 / 無不無體□兩妙 / □寂一如茲舍利 / 者始□大代興安 / 二年歲次癸巳冬 / 仲月五日□至大 / 隋仁壽三年歲 / 次丙寅五月因葺 / 燕魏塔得舍利四 / □至大業二年丙寅 / 歲十月八日再□□ / □□之下迨會昌 / 癸丑歲無寺明年

③ 石函蓋 唐代重葬記 2면

五月□□· · · / 至大中二年四月日開 / 兩寺卽靜志□心 / 度僧尼各三十人明 / 年十月因□彌勒□ / 像於正面□□□ / 得石函二一大一小大 / 函內有四珉像金銀 / 釵釧諸多供具內 / 金函函中有七瓊纒 / 繞銀塔內瑠璃 / 餅二小白大碧兩瓶 /

64 이하 명문 全文은 필자가 보고서의 탁본 사진을 바탕으로 새롭게 판독한 것이다. 탁본 사진은 『文物』 195(1972.8), 圖 14 참조. 탁본의 상태가 좋지 못하여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긴다.

65 당대중장기 제1면은 중앙의 隋代 명문 윗부분에 해당하며, 이후 2면, 3면, 4면은 시계방향의 순서로 배치된 것이다.

相盛水色凝潔□ / 受眞體□自□ / □顛□色相感應 / 然眞碑版寺□ / 二岸末日
悟眞定方 / □鈔□兩宗嚴五 / 佛科禁蓋名□□

④ 石函蓋 唐代重葬記 3면

□□寺接弱卒七 / □寺摘居此□□ / 池變林春道動力 / 構迺迎于眞身 / 固護始
末□十餘 / 祀每至朔日與郡 / 里縑白女男若干 / 人俱覘金□花□ / □無替加以
糊穿 / □沈一盡嚴好 / 衆問分力舉而□ / □大中十二年歲 / 次戊寅四月八日自 /
開元寺迎注信□ / 守申獻食置闔 / 郡□變喧路稱謙 / 執蓋持幡送歸□ / 塔 庶望
有方永安 / 地同泰不才者見

⑤ 石函蓋 唐代重葬記 4면

命眞錄斯文 / 其塔中小石塔者 / 本天祐寺隨塔 / 有舍利兩粒貯 / 餅四重瑠璃金
/ 銀漆安在小塔 / 頂舊函中盖上 / 面四□穿之記 / 北帝寺僧陶眞□ / 信心劉
貴書 / □志□

<부록 2> 宋代 誌石 銘文 (977년)⁶⁶

- 1행 : 靜志寺眞身舍利塔元自唐末起於茲寺暨北虜犯華中原販蕩君后迫辱兆庶岫危
2행 : 天厭元凶渠魁殲滅所在縱暴人不聯生馬軍廂主白再榮等潛結軍民奪略器仗殊
3행 : 死力戰戎醜北遁及失手常山乃報怨潏水焚燒城邑駢掠士人街巷伽藍悉爲煨燼
4행 : 前管內僧正昭果大師始自聚砂斯寺浴□被駢入北偶得逃還□草開庭□茅
5행 : 成□將僅十稔漸有衆僧昭果大師恒憂眞骨秘藏聖道堙沒遂□愷城院頭陶惠明
6행 : 謂曰此寺有眞身舍利若能興續願示所三礼受請一諾不遂於開寶九年歲次
7행 : 丙子三月中旬申 上欲開塔基重取舍利尋蒙 太尉俞允卽日於塔身內取得
8행 : 銀棺子一所小銀餅子一所內有舍利九粒香花雲會讚嘆雷嚮僧俗士女填堦路
皮又於
9행 : 地宮內石函中得銀塔子一琉璃餅二枚又得舍利九粒是冬十月
10행 : 先帝改駕

⁶⁶ 이 명문은 보고서의 탁본을 바탕으로 필자가 새롭게 판독한 것으로, 全文이 활자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탁본 사진은 『文物』 195(1972.8), 圖 6 참조.

- 11행 : 今上新立 太尉入觀崇信忝警□因憇精藍遂礼眞骨昭果大師謂崇信曰可□□
- 12행 : 捨衣盂告投親識欲起一小塔重葬舍利炎涼已易誘□□前可微年迺七旬近昏
- 13행 : 兩目切恐身先朝露有負夙心言發□零見者悽慘崇信因拾奉錢五十貫文同辨
- 14행 : □事於佛殿東講堂西築石塔基三間舊基取土又掘得石函一所內有金銅棺二銀
- 15행 : 棺子一琉璃餅子一水精合子二舍利三粒一大二小其於縷細舊記並存焉於太平興國二
- 16행 : 年歲在丁丑五月辛酉朔二十二日二處舍利葬於地宮內又新施到銀棺子一小金棺子
- 17행 : 三銀塔子二銀香爐一銀淨瓶一銀香合子一銀瓮子一玉環一相次起立石塔伏願一切有情
- 18행 : 同霽福潤崇信□不能文聊直書耳
- 19행 : 文林郎守司□叅軍宋□ 儒林郎安喜縣王簿李□儒林郎安喜縣録擢張□□
- 20행 : 丞奉郎試大理評事守錄事叅軍兼監察御史粮料使張恕□登仕郎守□叅軍王說
- 21행 : 觀察推官朝奉郎試大理評事五定中
- 22행 : 節度推官朝奉郎試大理評事李紹勳
- 23행 : 節度判官中散大夫檢校尙書七田貢外郎兼殿中侍御史羅光問
- 24행 : 霸供奉官兵馬監押銀青光祿大夫檢校尙書左僕射兼御史大夫上柱國馮翊懸開國食邑五百戶□崇祐
- 25행 : 朝請大夫太尙丞通判推知軍州事柱國許守丈
- 26행 : 東上閣門使巡檢銀青光祿大夫檢校尙書右僕射兼御史大夫上柱國京兆縣開國男食邑三百戶□崇信
- 27행 : 推忠寡同德翊載功臣定武軍卽度定□□□觀察□□北平軍等使特進檢校大□使□節定州諸軍行定州□史
- 28행 : 史大夫上柱國河南郡開國公食邑三千五百□上□□八百戶祔廷訓

참고문헌

『魏書』

『佛祖統紀』

鎌田茂雄(章輝玉 譯), 『中國佛教史 3 - 南北朝의 佛敎(上)』, 도서출판 장승, 1996.
국립중앙박물관·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 석가탑 유물 2 - 중수문서』, 시티파트너, 2009.

関斗基 編, 『中國史 時代區分論』, 創作과 批評, 1984.

불교문화재연구소 편, 『불국사 삼층석탑 목서지편』, 불교문화재연구소, 2009.

이주형, 「간다라 佛像과 舍利 奉安」, 『중양아시아 연구』 9, 2004.12.

_____, 「인도 초기불교미술의 佛像觀」, 『美術史學』 15, 2001.8.

임지현·이성시 편,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2004.

周昞美,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일지사, 2003.

_____, 「唐代 慶山寺 地宮 出土 佛舍利莊嚴의 新研究」, 『中國史研究』 29, 2004.4.

_____, 「탑형 사리장엄구: 건축 이미지의 공예적 변용」, 『미술사와 시각문화』 5, 2006.10.

_____, 「불교미술과 물질문화: 물질성, 신성성, 의례」, 『미술사와 시각문화』 7, 2008.10.

_____, 「北宋代 塔形舍利莊嚴具의 研究」, 『中國史研究』 60, 2009.6.

孫彥平, 「北宋鑿花舍利金棺」, 『文物春秋』 40, 1998.1.

沈陽市文物考古研究所, 「沈陽新民遼濱塔塔宮清理簡報」, 『文物』 599, 2006.4.

安家瑤, 「試探中國近年出土的伊斯蘭玻璃器」, 『考古』 279, 1990.12.

李輝柄, 「關於“官”, “新官”款白瓷產地問題的探討」, 『文物』 343, 1984.12.

李輝柄·畢南海, 「論定窯燒瓷工藝的發展與歷史分期」, 『考古』 243, 1987.12.

定縣博物館, 「河北定縣發現兩座宋代塔基」, 『文物』 195, 1972.8.

陈文增, 『定窑研究』, 北京: 華文出版社, 2003.

河北省文物局 編, 『定州文物藏珍 - 河北文物精華之三』, 廣州: 嶺南美術出版社, 2003.

『中國の金銀ガラス展』, 大阪: 大阪市立博物館, 1992.

『地下宮殿の遺宝』, 東京: 出光美術館, 1997.

金沢陽, 「定州の佛塔と塔基地宮發掘の成果」, 『地下宮殿の遺宝』, 東京: 出光美術館, 1997.

山崎淑子, 「定州靜志寺·淨衆院舍利塔塔基地宮の壁畫」, 『地下宮殿の遺宝』, 東京:

出光美術館, 1997.

宿白, 「定州工藝與靜志, 淨衆兩塔地宮文物」, 『地下宮殿の遺宝』, 東京: 出光美術館, 1997.

中野徹, 「隋唐の遺跡と工藝」, 『世界美術大全集 東洋編 第4卷 隋唐』, 東京: 小學館, 1997.

眞道洋子, 「ガラス器」, 『世界美術大全集・東洋編 第5卷 五代・北宋遼・西夏』, 東京: 小學館, 1998.

Schopen, Gregory. *Bones, Stones, and Buddhist Monks: Collected Papers on the Archaeology, Epigraphy, and Text of Monastic Buddhism in Indi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7.

1969년 중국 河北省 定縣에서 출토된 宋代의 靜志寺塔 地宮에서는 방대한 양의 사리장엄구와 공양구가 출토되었다.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탑이 창건된 北魏때부터 시작하여 10세기 후반에 地宮이 폐쇄될 때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매납된 것이다. 즉 정지사탑 지궁 출토품은 각 시대별 불사리장엄 방식의 변천과정과 그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진신사리의 공양과 함께 세워진 탑이 내내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의 탑들은 戰亂이나 火災, 불교 탄압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훼손되어서 후대에 다시 세워지거나 보수된 경우가 많다. 이때 탑내의 사리장엄구는 이전의 奉安品을 함께 봉안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봉안품과 봉안방식이 추가되면서 이것이 더 중요시되었다. 이러한 불사리의 재매납 과정에서 일어나는 장엄방식의 변화에 대한 자료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예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도 어려운 편이었다. 그러나 정지사탑 지궁의 경우에는 北魏時代, 隋代, 唐代, 宋代에 걸쳐 불사리장엄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과정과 관련된 명문들이 사리장엄구와 함께 발견되어 주목된다.

이 논문에서는 정지사탑 지궁에서 출토된 각종 사리장엄구와 이들의 재매납 과정에 대해서, 기존에 공개된 명문자료 및 관련 유물의 재정리를 시도하였다. 현재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정지사탑의 창건은 北魏 453년이었으며, 이후 수나라 606년에 재건되었다. 唐代에는 858년과 889년에 불사리의 공양과 탑의 재건이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지궁이 닫힌 것은 北宋代 977년이었다. 이러한 재매납 과정에서, 앞 시대의 사리장엄구 양식이 뒷 시대의 사리장엄방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한편 현존하는 지궁내 출토 유물과 벽화는 대부분이 송대 유물이며, 특히 定窯에서 만들어진 백자와 동전 등과 같은 중요한 유물들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그러나 송대의 지궁 재매납 과정을 기록한 지식에는 백자나 동전의 봉안 등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지식에 기록된 물건들의 목록과 실제로 봉안된 공양구의 물품 목록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유물들은 지궁에서 발견되는 지식 명문의 내용과 출토품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불사리 자체의 聖物로서의 속성은 여러 시대에 걸쳐 존송되었기 때문에 불사리의 재매납은 중국 및 동아시아의 불교문화에서는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지사탑 출토품과 같이 역대의 재매납 과정을 자세히 검토할 수 있는 명문자료와 공반 유물이 함께 발견되는 것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정지사탑 출토 사리장엄구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정지사탑 지궁에서는 당대 후기 유물과 북송대 초기 유물들이 함께 발견되면서 명문을 통해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당대와 송대 미술의 영향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The Re-enshrinement Process of the Buddhist Reliquaries of *Jingzhisi* Pagoda in Northern Song Dynasty

Joo, Kyeongmi

In 1969, large amount of Buddhist Reliquaries and votive objects were found from the underground palace of *Jingzhisi* (靜志寺) Pagoda in *Dingxian* (定縣) of *Hebei* Province, China. These remains had been buried from the first construction time of the pagoda in Northern Wei to the last enshrinement of the underground palace in the late tenth century. This underground palace was reconstructed more than 4 times after the first construction of the pagoda. Therefore, these remains are very important for understanding the re-enshrinement processes of the Buddhist reliquaries in East Asia.

In most cases, the external shape of a Chinese pagoda built for offering of the Buddha's bodily relic has changed because of a war, a fire or the suppression of Buddhism by a government. During the changes of a pagoda, the relic enshrinement had subsequently changed the style of burial, because people had opened the underground palace for adding the offerings of the Buddha's relics inside the pagoda. The older items or Buddhist reliquaries which had been buried in the underground palace before were re-enshrined there again when the pagoda was reconstructed with the addition of new items and new Buddhist reliquaries. However, the newly buried items were more important for the people who opened and refurnished the pagoda and the Buddhist reliquaries than the old items found from the pagoda except the Buddhist relic itself. These repeated processes of the relic enshrinement of a pagoda had not been studied yet, because of the lack of the materials which showed the full processes of a pagoda. This underground of *Jingzhisi* Pagoda is

very important and interesting since the Buddhist reliquaries and their inscriptions found from *Jingzhisi* Pagoda show the Buddhist relic enshrinement process from the Northern Wei to Northern Song dynasty.

Here I reexamined the Buddhist reliquaries and their re-enshrinement process of *Jingzhisi* Pagoda. According to the materials which are known to the present, *Jingzhisi* Pagoda was first constructed in 453 of Northern Wei, destroyed in the unknown time, then reconstructed in 606 under Sui dynasty. But this pagoda was also collapsed and reconstructed again in 858 under Tang dynasty, and refurbished in 889. This Tang pagoda was totally damaged again during the war between Liao and Northern Song, and reconstructed in 977 by the monk *Zhaoguo* (昭果) and the emperors of Northern Song. During the refurbishment of the Buddhist reliquaries, the older style of the reliquaries had influenced on the new reliquaries. Most of the remaining items from the underground palace of *Jingzhisi* Pagoda are made in Northern Song dynasty, which are included the wall paintings of Buddhist Nirvana Scene, white porcelains of *Dingyao* (定窯) and many copper coins of Song. But these things did not appear in the stone inscription officially written in 977 and buried in the underground palace. It means that the official record on the Buddhist relic enshrinement shows only the highlights according to their views, s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items recorded in the inscription and those really founded from the site could be found. This is a very important and unforgettable view in understanding the buddhist reliquaries which had been re-enshrined at the same spot over times during its long history.

The Buddha's relic itself was believed as a sacred object for a long time, the re-opening and re-enshrinement of the Buddhist reliquaries inside a pagoda have happened very often. The Buddhist reliquaries excavated from the *Jingzhisi* Pagoda site show the process of re-enshrinement of the buddhist relic and reliquaries for a long time in a very good condition. This is a very rare case to show the process of the relic enshrinement from the Northern Wei to the Northern Song. Also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buddhist arts and materials found from *Jingzhisi* Pagoda show the stylistic relationships between the late Tang art and the early Northern Song art.

논문 투고일 : 09. 05. 10. 논문 심사완료일 : 09. 06. 30. 게재확정일 : 09. 07. 06.